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말로 못한 '사랑' 글로 적은 '사랑'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김재진 지음/김영사 펴냄
1만4천8백원

'사랑'을 관통하는 44편의 에세이
깊은 성찰이 빚은 따뜻한 이야기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
40년 동안 시집 등 30여 권 출간


저자 김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꽃이 지고 나면 다음 해에 또 피지만, 사람은 가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어머니께 하지 못한 한마디는 오래오래 내 가슴속에 후회로 남아 있다. 〈중략〉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언제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가 않다."

그때 했어야 할, 그때 하지 못해 가슴속에 후회로 남아있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때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말이 될 수 없어 안타깝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말은 이제 글이 되어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연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책은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를 모은 것이다. "언제라도 늦지 않다"며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토해낸다. 김재진 시인의 산문집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사랑'을 관통하고 '사랑'으로 귀결되는 44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할까? 참 쉬운 말인데도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사랑'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세월이 '사랑'이라는 말로 피기까지, 나와 너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까지, 길냥이와의 만남이 그렇게 되기까지, 모두 쉽지 않은 것이다.

저자도 그랬다. 평생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감정표현에 서툴다는 이유가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게 이 책의 이유다.

저자는 오랜 투병 끝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끝내 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오래오래 가슴속에 후회로 남았다. 책은 저자가 어머니에게 끝내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토해내며 시작됐지만 그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흐른다. 작은 생명과 사물에 대한 애정부터 존재 자체의 소중함, 부모와 자식 · 남녀 간의 사랑, 우연한 만남이 선물한 특별한 순간들과 범우주적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저자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빚어낸 문장들은 우리 마음에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는다.

저자는 여러 편의 소설과 시가 당선되며 등단한 뒤 40여 년간 글을 썼다. 젊은 시절, 방송사 피디로 일했고, 오래 병석에 누워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가 벽에 입을 그려달라고 청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시작해 세 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미 3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그이지만, 이 책은 좀 더 특별하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미처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온몸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집 없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애틋한 마음에서, 빈집의 열려 있는 빗장을 단단히 채워주고 가는 낯선 이의 손길에서, 이방인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잠도 못 자고 길을 안내하던 부탄 소녀의 미소에서, 계절마다 형형색색 꽃과 잎을 피우며 다채로운 목소리로 시인처럼 노래하는 자연의 생명력에서, 독자는 '김재진의 사랑'을 만난다.

"성가시게 여기던 길냥이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은 순전히 지인 덕분이다. 유난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로 인해 집 없는 것에 대해 연민이 생긴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군가를 애정할 경우엔 그 누군가가 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다. 생명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 〈애정의 눈 하나〉 중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준다. 바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서로를 보듬는다.

책은 많은 일화를 통해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지친 세상에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사랑을 매개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눈과 귀, 마음으로 담아낸 삶에 대한 다정한 위로와 위안의 언어는 책 전체를 관통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정여울 작가는 "김재진 시인의 글은 한 사람을 위해 바쳐진 협소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했다.

저자 김재진은 〈영남일보〉와 〈조선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시와 단편소설,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40여 년 동안 글을 썼다. 글을 쓰면서도 문단과는 멀리 있고,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과는 거리를 둔 은둔자로서의 삶을 추구해온 그는 우연히 듣게 된 첼로 소리에 끌려 음대에 입학하기도 했다. 방송사 피디로 일하며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돌연 직장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며 인생의 신산(辛酸)을 겪었고, 어머니의 청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전시회를 열고, 첫 전시회의 그림이 솔드아웃 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시집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산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장편소설 〈하늘로 가는 강〉 어른을 위한 동화 〈잠깐의 생〉 〈나무가 꾸는 꿈〉 산문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등을 펴냈다. 현재 파주 교하에 있는 작업실 '민들레 행성'에서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14쪽 - "단 한 줄의 시를 쓰지 않았다 해도 시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천 편의 시를 썼다 해도 시인 아닌 사람이 있다. 시인이 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 삶을 사랑하고, 삶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삶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시인이다."

이쯤 되면 라즈니쉬가 말하는 시인이 어떤 존재를 일컫는지 짐작이 간다. 그는 문자로 된 시를 쓰는 차원을 넘어 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시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41쪽 - 꽃잎보다 가벼운 눈도 쌓이면 무거워지는 법이다. 무게 없는 생각도 쌓아두면 무거워지는 건 마찬가지이다. 눈이건 생각이건 털어내야 젖지 않는다. 삶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음에 살얼음이 끼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중심을 가지되 가볍게 살아야 한다.

69쪽 - 꽃은 지고 나면 다음 해에 또 피지만, 사람은 가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어머니께 하지 못한 한마디는 오래오래 내 가슴속에 후회로 남아 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시간을 돌아보며 아무도 없는 허공 위로 "사랑해요" 하고 불러본다.

사람이 떠난 자리엔 후회만 남는 법, 아끼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꼈다는 자책으로 나는 어둠 속에 탄식 하나 토해놓는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언제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가 않다.

72쪽 - 이상한 일이었다. 마치 말이 통하는 누군가가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고양이에게 말을 건넸다.

"삶은 모두 불꽃을 가지고 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길냥이는 묶이지 않았지만 묶인 것같이 부자유스러운 자세였다. 입고 있는 옷은 털이 빠지고 때가 묻어 병든 모습이 역력했다.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YouTube
유튜브 동영상 강연!
검색: 밝은사람들연구소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시청 가능!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은 초기불교, 선불교, 대승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분야에서 바라본 번뇌의 의미와 본질, 구조,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성찰이다.

이필원 · 김재권 · 오용석 · 박찬국 · 이유경 집필
신국판양장/368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